



서중신문

2017-1호

- 발 행 인 : 교장 김두용
- 지도교사 : 정 혁
- 발 행 처 : 변산서중학교
- 발 행 일 : 2017. 7. 21

5634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따뜻함이 묻어나는 혁신학교, 변산서중



6월의 끝자락이지만 더위가 7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듯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정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무더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혁신학교라는 다소 낯설지만 매력적인 타이틀을 따낸 지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학교의 제일 큰 변화는 학교에서 '나, 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학교',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관리자로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한 가족처럼 생활하며, 그 힘을 모아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는 교문에 아이들이 들어서면 순간부터 웃음꽃이 피고 모두가 행복해하며 아이들은 정상수업이 끝나도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야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에 최선을 다하며,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학교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고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아이들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가 그렇듯이 우리 학생들을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아이 스스로 변해가며 자기 꿈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현명한 관리자가 될 생각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는 현재 학교의 모습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한 우리 학교의 혁신 교육이 성공을 거두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이웃 학교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도 즐겁게 학교의 교문을 들어섭니다.

내 안의 꿈 찾기 · 벽화 그리기

‘내 안의 꿈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꿈 그리미 벽화 그리기’ 활동이 6월 15일부터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로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7월 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벽화



그리기는 낱아서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운동장 스탠드에 아름답고 귀여운 캐릭터 등의 그림을 우리 학생들이 이길남 선생님의 지도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고 있는 1학년 김예슬 학생은 “내 손으로 우리 학교를 꾸밀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특히 내가 평소 좋아하는 만화를 이렇게 큰 벽에 그려보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김예슬 학생 같은 1학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의 재능 계발과 진로탐색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 ‘내 안의 꿈 찾기’는 올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직업프로그램으로 ‘우리 고장 직업 찾기’, ‘영화관 직무체험’, ‘전통 목공예 체험’, ‘디자이너 직업 체험’, ‘부안 상설시장 직업 체험’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Contents

2 + 학교소식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교교육과정설명회
- 과학의 달 행사
- 장애 이해 교육
- 자살예방교육
- 자살예방캠페인

3 + 학교소식

- 진로체험의 날
- 독후감 발표대회
- 학생회장 선거, 임원 선출
- 현충일 추념행사
- 자연환경 · 문화 진로체험학습

4 + 체험학습

- 내 고장 체험활동
- 물드림캠프
- 학생수련활동

5 + 혁신학교

-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 혁신학교 사업 소개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6 + 동아리활동 및 학교사업

- 가온누리 활동
- 방송부 활동
- 다꿈키움학교
- 현대자동차 중점학교

7 + 학교사업

- 느루동행학교 사업
- 어울림학교 사업
- 우리는 한가족 프로젝트
- 변산면 발전 추진협의회 후원

8 + 우리들의 솜씨

- 학생 추천작 “절정
-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탁구 우승
- 청소년 목공 healing 체험
-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16 일(목)부터 1박 2 일 간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에서 신입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두용 교장 선생님 이하 전교사들이 인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팀워크 프로그램(로잉머신 레이스 등)과 팀미션 프로그램(마실멜로 챌린지 등)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안내 및 소개가 있었습니다.

1학년 이성찬 학생은 “새로운 환경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우리 학교라는 소속감을 느꼈다.”라고 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정설명회

2017학년도 변화의 중심에 선 우리 학교-‘혁신학교’



2017년 3월 28일 우리 학교 소강당에서 2017학년도교육과정설명회와 수업공개가 있었으며, 약 30여 명의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수업공개는 다섯 개 반 모두 두

시간씩 ‘내 고장 변산’을 주제로 한 주제통합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관한 여러 학부모들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노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설명회에서는 우리 학교의 전년도 실적과 올해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전교사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회장 이명화)과 임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김동춘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육 수업



2학년 학생들의 정성룡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3학년 학생들의 손민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수업



특수반 학생들의 김혜림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과 수업



과학의 달 행사

‘과학의 달’ 교내과학탐구대회 · 로켓은 꿈을 싣고 ~

2017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4월 10일에서 21일 사이에 우리 학교 전교생이 참여한 교내과학탐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과학 관련 독후감 쓰기, 과학 관련 시와 그림, 과학상자로 하는 기계공학, 에어로켓 등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어로켓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낸 3학년 김규빈 학생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로켓이 하늘을 나는 순간 나도 함께 날고 있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라고 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실험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애 이해 교육

장애를 알고 편견 no no

장애 이해 교육주간(4월 20일 ~ 4월 27일)인 4월 26일(수) 7교시에 우리 학생들이 장애이해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수반 김혜림 선생님의 주관 아래 장애 이해 영상 시청과 설문조사, 퀴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4월 20일(목) 아침 등굣길에 있었던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생명사랑교육

우리 학교 자살예방교육이 4월 19일(수) 7교시 소강당에서 전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윤은지)에서 나와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 생명사랑’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는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했던 윤은지(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선생님은 “변산서중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에 놀랐고, 모두들 학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칭찬하였습니다.



자살예방캠페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우리 학교 자살예방캠페인이 4월 26일(수) 하룻길에 전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윤은지)에서 나와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4월 19일 있었던 자살예방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팸플릿과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였으며,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로체험의 날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잘못 알고 있는 직업의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주기 위하여 '진로 체험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8일(월)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부모 직업체험으로 강성필 학부모(3학년 강수정 父), 지역 인재 직업체험으로 송영무 차장(한국수자원공사), 선배와의 만남으로 김소슬 변호사(32회 졸업생) 등의 세 분이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성필 학부모



송영무 차장



김소슬 변호사



춘계 독후감 발표대회

5월은 독서하는 달~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우리 학교 독후감 발표대회가 5월 29일(월) 5교시에 소강당에서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3학년 박정진 학생인 미래일러 회스의 '나쁜 친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김시은(2학년), 한희준(3학년) 학생들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3학년 박정진 학생은 친구들과 좋은 책을 함께 나누고자 참가하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임원 선출

학생 자치는 우리 손에서 시작한다!!



기호 1번



기호 2번

2017 학년도 우리 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3월 22일 드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학생회장선거에는 기호 1번 임면건(부회장 : 신승우), 기호 2번 정경훈(부회장 : 김규빈) 등의 두 후보가 입후보하여 선거 결과 기호 2번 정경훈 후보가 2017 학년도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약 2주 간에 걸친 이번 선거에는 세 후보 모두 UCC동영상 제작, 포스터 제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 학생들에게 유세하였으며, 우리 학교 혁신학교 교육철학에 따라 '학생 자치가 꽃 피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각 반 실장 및 부실장에는 1학년 1반 임태은 외 9명의 학생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학생들



현충일 추념행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해 안전교육



제 62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6월 6일(화) 충혼탑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있었습니다. 약 30분 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9.28 수복동지회 및 유가족, 각 기관 단체장, 군인, 공무원 그리고 우리 학교 20여 명의 학생들이 합창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음악과 나향탁 선생님의 인솔 하에 3학년 신승우 외 19 명의 학생들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자연환경 · 문화 진로체험학습

아름다운 선유도와 그에 얽힌 전설 '해적'

5월 2일 우리 학교의 올해 춘계 현장체험학습이 군산 선유도 일원과 새만금 예술창고 등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일곱 명의 교사들이 인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해 체험학습의 주제는 '자연환경 · 문화 진로체험학습'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군산 선유도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오랫동안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선유 8경' 등의 자연환경 및 봄철의 자연생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선유도를 다녀온 후, 새만금 예술창고에서 비언어 뮤지컬 '해적'을 관람하였습니다. '해적'은 고군산 군도의 설화를 각색하여 대사가

없는 비언어 뮤지컬로 꾸며졌으며, 화려한 조명과 배우들의 무용 등으로 이를 대신하였습니다. 관람 후, 우리 학생들은 배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이번 체험학습은 부안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학교지원을 통해 모두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 예술창고에서 '해적' 출연진과



아름다운
선유도 해변에서

내 고장 체험활동

내변산 야생화 탐방

변산 바람꽃을 찾아서

4월 27일(목) 오후 1시 내변산에서 '봄꽃의 향연, 내변산 야생화 탐방'이라는 주제로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내 고장 체험학습이 과학과 김덕중, 손민재 두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체험학습은 우리 고장 변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2학년 심보람 학생은 "평소 관심 갖고 보지 않아 몰랐던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내변산의 풀꽃마져 아름답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감탄하였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나와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기 전에 몸을 푸는 체조와 야생화에 대한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봄철 별자리 여행

☆은 내 가슴에~

우리 학교 노력중점사업인 '내 고장 체험학습'이 4월 28일 부안 청림천문대에서 3학년 유빈 외 11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과 김덕중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3D 그래픽 영상 시청 및 봄철 별자리 관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늦은 시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 1학년 조은예 학생은 "처음으로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고, 별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궁금함이 가득 생겨 과학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라고 하며 두 볼이 상기되었습니다.



부안생태체험

'변산 8경' 탐하기

내 고장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부안생태체험 '변산 8경 탐하기'가 6월 17일(토)에 과학과 김덕중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희망 학생 10여명(3학년 정경훈 외 9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소사, 직소폭포 등의 '변산 8경'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던 절경으로 소문난 '변산 8경'의 아름다움에 주말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실길 걷기 체험

엄마야, 누나야! 오복 마실길 걷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마실길 걷기' 행사가 5월 5일(금) 변산 마실길 6코스에서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두 명의 교사가 인솔하고,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항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걸으며, 서해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변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하여 왕포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행사는 5월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안 마실길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마실길 걷기'에 참여한 3학년 박태양 학생은 "평소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흘러들었는데 이렇게 마실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니 변산만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와 다른 마실길 코스도 모두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질명소 탐사

적벽강, 숨겨진 비밀

6월 8일(목) 내 고장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3학년 2반 15명의 학생들이 적벽강에서 지질구조를 탐사했습니다. 김덕중, 이은세 두 선생님의 인솔로 이루어진 이번 탐사는 적벽강 페퍼라이트 형성과정과 사구식물 탐사 등을 하여 우리 학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학년 남도현 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왔던 곳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보니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며, 지질탐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물드림캠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마시는 우리!!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K-water 물드림캠프를 진행하여 물의 소중함과 그 바른 이용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4월 18일(화) 부안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드림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물이론 교육, 다목적댐인 부안댐의 역할, 정수과정 등에 대한 학습이 있었으며, 물 관련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물드림 캠프에 참가한 1학년 조은예 학생은 "우리 지역에서 부안댐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욱 물을 아껴 써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수련활동

리더십 · 인성 수련활동

올해 우리 학교 학생수련활동은 '리더십 · 인성 수련활동'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 11일 1박 2일 간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7명의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활동은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YOU & I', '행복습관 프로젝트', '나를 바꾸는 시간', 레크리에이션 '우리는 하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춡고 배고픈 아침을 따뜻하게 녹이는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3월은 반갑데이~

2017 학년도 혁신학교로 선정된 우리 학교에서는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행사를 3월 2일부터 매달 총 9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반갑데이' 행사로 김두용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전교사들이 아침 등교길의 학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주고받고 따뜻한 정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학년 김정민 학생은 "비록 추운 아침이었지만 선생님들이 밝게 웃으시며 맞아 주셔서 힘이 나는 하루였다."라고 하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아침 등교길에 교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맞아 주었는데 이제는 전교사들이 동참하여 더욱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빛소리마저 달콤한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4월은 공부합시데이~

4월 11일 아침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의 일환으로 4월의 '공부합시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교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포옹(허그)의 효과를 알려 학생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을 바깥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든든한 아침을 챙겨주는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5월은 프리허그데이~

5월 23일 아침 등교길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여 학생들의 아침식사로 샌드위치와 음료를 나눠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프리허그'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교 학부모회(회장 이명화)와 학교운영위원회(회장 임영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식 같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따뜻한 정(情)이 있는 곳으로서 우리 학교를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주섭 학부모(3학년 한단비 누는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따뜻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모교라는 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NO 보다는 YES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6월은 예스데이~

6월 13일 아침에는 6월의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로 '예스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NO보다는 YES를 밝은 웃음과 함께 건넬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된 6월의 '예스데이'는 전교사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짐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밝은 웃음과 행복한 하루를 비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YES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소개

"따뜻함이 묻어나며, 학생자치가 꽃 피는 학교"

우리 학교는 작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따뜻함이 묻어나며, 학생자치가 꽃 피는 학교"라는 교육철학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현재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업 공개 컨설팅과 배움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여 혁신학교의 철학, 비전, 목표,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업무 경감을 실현하고, 자발성과 다양성이 있는 학교문화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과·제빵교육 등의 학부모 평생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특기적성 및 학생동아리 활동을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여 10여 개 이상의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의 혁신학교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며, 수년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해 나가고자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書對公감 - 함께 읽고 통(通)해요^^

우리 학교는 올해 혁신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書對公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면 학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근의 두 초등학교와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오후 두 시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국어과 정혁 선생님이 진행하는 올해 '書對公감'은 총 8회에 걸쳐 시, 소설, 수필, 역사서 등의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준비하여 차와 독서, 담화를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제과·제빵 교실 - 맛있는 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는 올해 혁신학교 사업과 어울림학교 사업, 다꿈키움학교 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교육은 우리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의 두 초등학교(격포초, 변산초) 학부모들과,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매주 화요일 두 시에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지역 학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소시지빵부터 케이크까지 다양한 제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가온누리 - 문화재 지킴이 활동



우리 학교 가온누리 동아리 학생들이 5월 17일 오후 4시에 변산면 수성당에서 문화재 지킴이로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학년 최대웅 외 3명의 학생들은 수성당을 청소하고 지킴이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함께 했던 1학년 조은예 학생은 “처음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선배들과 함께하니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며, 가온누리 활동의 다음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가온누리 동아리는 매년 이러한 문화유적지 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부 - 꿈꾸는 라디오(보이는 라디오)

올해 우리 학교는 새롭게 혁신학교로 출발하며, ‘따뜻함이 묻어나며 학생자치가 꽃 피는 학교’라는 교육철학에 맞춰 학교 방송부(부장 3학년 신승우)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방송부 학생들은 오후의 희망음악에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궁금합니다.’와 학생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합니다.’ 코너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소환되어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에 소환당한 손민재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꿈키움학교 - 다문화 이해교육

문화소통 up, 어울림 up, 드림 up



전통음식을 시식 중인 학생들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학생들



중국과 일본, 베트남의 전통의상을 착용해 보는 학생들

우리 학교 다꿈키움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 ‘문화소통 up, 어울림 up, 드림 up’이 5월 15일(월) 5, 6교시 두 시간에 걸쳐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학교 드림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각국의 전통음식 시식, 전통의상 및 전통놀이 체

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피해자지원협회(김소라 외 3명)에서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놀이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학년 이한결 학생은 “한문 수업시간에 배웠던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나라의 놀이문화를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니 그 나라만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말의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여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 우리 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꿈키움학교로 지정되었는데 다꿈키움학교는 다문화중점학교로서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학교가 다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중점학교

미래 자동차학교 현장체험학습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미래 자동차학교 현장체험학습이 5월 12일 (금)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잡월드와 현대 모터 스튜디오 등에서 이은세 선생님의 인솔로 있었습니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이동한 학생들은 한국 잡월드에서 강의를 듣고, 현대자동차관의 모터스포츠센터, 고성능차 연구개발센터, 고성능차 디자인센터 등에서는 자동차 제작에 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로 이동하여 자동차 문화 전문가 ‘구루’의 안내를 통해 자동차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3학년 유빈 학생은 “평소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는 현대 기계공학의 집약체라 생각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 같아 너무 기쁘고 흥분된다.”라고 하며, 현대자동차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 현대자동차 중점학교는 교육부와 현대자동차가 자유학기제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중학교 중 30개 학교를 선정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 재고와 미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



신차를 체험하는 시간



아, 자동차가 달구지는 아니구나



한국 잡월드에서 단체사진

느루동행학교 사업

우리 학교는 2017학년도 느루동행학교로 선정되어 약 4백만 원의 예산으로 학습장애, 정서행동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들의 지원과 소통과 유기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 학습의욕 면에서 일반학생들보다 현저히 낮고,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며, 학부모들도 가정형편과 생활 등에서 이를 개선해 나갈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연구부장 나향탁 선생님을 주축으로 상담, 학력 향상, 문화 체험, 지원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심리상담검사 및 치료, 기초학력지도, 사제동행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느루동행학교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는 보여 주기식의 사업이 아니라 선정된 학생 중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학력 책임제를 통해 기본학력향상과 사교육비 부담감소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해결 및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학교 구성원 간 협업 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다중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의 자존감 회복 및 자신감 찾기,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학교교육의 질 제고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울림학교(작은 학교 협력형) 사업

학부모 제과·제빵 교육

2017학년도 우리 학교 제과·제빵 교육이 4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 학교(변산서중학교,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 2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중 어울림학교 사업은 5회, 다꿈키움학교 사업은 4회, 혁신학교 사업은 3회 등 총 12회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정희 선생님의 지도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딸기 생크림 케이크, 아모든 초코빵, 마들렌 등을 제빵하고, 자녀들의 간식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정 및 다문화센터 등의 간식으로도 제공하였으며, 3개 학교 학생들의 간식으로도 제공되어 폭발적인 환영을 받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였던 김희진(2학년 곽태식 모) 학부모는 이제는 혼자서도 아이들의 간식은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하여 우리 학교 제과제빵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먹을 빵은 우리가~

학부모 독서 프로그램 '書對공감'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실시되었던 '書對공감'이 올해에는 4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두 시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약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書對공감'은 <동전 하나라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미경 著)>을 시작으로 수필, 역사, 소설, 시 등의 다양한 장르의 여덟 작품들을 추천하여 평소 누리지 못 했던 책 읽는 여유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공감해 봐요^^

※ 사업소개 : 어울림학교(작은학교 협력형)는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간에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재작년부터 변산 관내 3개 학교(변산서중학교,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가 모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전문 제빵강사(주정희)를 초빙하여 제과·제빵 교육을 12회(5월~7월), 학부모 독서 프로그램인 '書對공감'을 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위한 수련활동도 '아름다운 변산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가족 프로젝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4월 13일 변산초등학교에서

4월 14일 격포초등학교에서

4월 13일, 14일 변산초등학교와 격포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두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게릴라 과학실험을 하였습니다. 태양광 진동로봇, 로봇 청소기, 광섬유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과학 활동을 우리 학교 3학년 임면진 등의 학생들이 후배들의 과학 활동을 돕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과학과 김덕중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후배들과 여러 과학행사를 함께하며 더욱 친해지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계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는 ‘우리는 한가족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근 초등학교(격포초, 변산초)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과학실험, 별자리 관측, 과학캠프 등을 4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중입니다.

※ ‘우리는 한가족’ 프로젝트 활동 내용

월	활동 내용	비고
4월	- 봄철 별자리 여행 - 변산초등학교 및 격포초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하는 게릴라 과학실험	
5월	- 산·들·바다를 품은 변산 마실길 걷기	
6월	- 변산8경(邊山八景) 탐(貪)하기 - 감수성을 기르는 숲 사랑 생태 체험학습	
7월	- 한여름 밤의 꿈 : 변산, 고사포, 채석강 체험활동 (변산반도국립공원 주관 갯벌체험 및 지질구조 탐사)	
8월	- 여름방학 과학캠프(과학 실험 체험부스 운영 및 진로특강)	
9월	- 가을의 향기 : 우리 고장 산 오르기(월명암, 내소사, 개암사 등) - 격포초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하는 과학 실험 I	
10월	- 가을철 별자리 여행 - 변산초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하는 과학 실험 II	
11월	- 드론으로 세상 바라보기	
12월	- 변산서중 과학 실험 체험부스 운영 (과학동아리 '과학발전소' 주최)	
1월	- 겨울방학 과학캠프 '쑥쑥캠프'(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변산면 발전 추진협의회 후원

3월 7일 변산면 발전 추진협의회(약칭 변추협)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라면 등의 간식을 5박스 제공해 주었습니다.

변추협은 우리 지역 변산면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써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활 및 학습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지역 단체입니다.



학생작품

264 그가 꿈꿨던 “절정”



● 2학년 1반 조이랑

영화 ‘절정’은 1940년도에 살았던 ‘이원록’ 시인의 이야기다. 일제 강점기의 시대였던 그 때는 독립 운동가들이 ‘만세’를 외치고, 독립을 꿈꾸며 준비를 했다.

시인 이원록도 의열단에 들어가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다. 기밀문서도 전달하고, 군사 훈련도 같이 했지만 기밀문서가 잘못 넘어가며 의열단에서 밀려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들 당했다. 하지만 이원록은 감옥에서도 벽에 시를 쓰며 꿈꿨고, 수감번호가 264

번이어서 일본순사에게 ‘이육사’라고 불렸다. 감옥에서 나온 이원록은 이름을 ‘이육사’로 개명했다. 처음에는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이었으나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이름의 의미를 바꿨다.

다시 의열단에 들어간 이육사는 전쟁에 참여했으나, 총에 맞아 동료

가 죽고, 감옥에서 고문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원록 시인은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미치지 않고 정신을 붙잡은 만큼 강한 시를 썼다. 또 그런 과거 때문에 어찌면 더욱 단단한 시가 나왔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원록 시인이 한 번 의열단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냥 시인으로 살아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이 시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신문에 독립운동에 관한 시를 쓴 것처럼 시를 이용해서 운동에 도움을 줬어도 좋았을 것 같다.

끝으로 이 ‘절정’이라는 영화는 일제강점기라는 당시 시대를 잘 나타낸 것 같고, 독립운동가이자 한 사람의 시인이기도 했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갈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할리우드식 액션영화가 아닌 이런 위대한 시대정신을 나타낸 영화를 많이 보고 싶은 바람이다.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탁구 우승!!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탁구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2학년 박한강 외 2명, 3학년 임면건 외 2명의 총 6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3학년 김도연 학생은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 동생들과 함께 공격적으로 게임에 임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라고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청소년 목공 healing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심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청소년 목공 healing 체험’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19일(월)과 20일(화) 2회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무더운 여름에 그늘을 만들고 쉼 공간을 제공하는 정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 1학년 심재민 학생은 “직접 공구를 사용해 만들다보니 재밌었고, 완성된 정자를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어 더욱 좋았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1학년 진로 시간에 실시된 이번 목공체험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재능 계발, 그리고 목공을 통한 성취감 획득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자평하였습니다.



방학 중 안전지도

● 폭염 시 안전수칙

■ 폭염주의보(연중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발령 시

-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는 친인척·웃 등에 보호를 의뢰한다.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 폭염경보(연중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발령 시

-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한다.(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간다.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 어린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한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 긴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